학안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조성지구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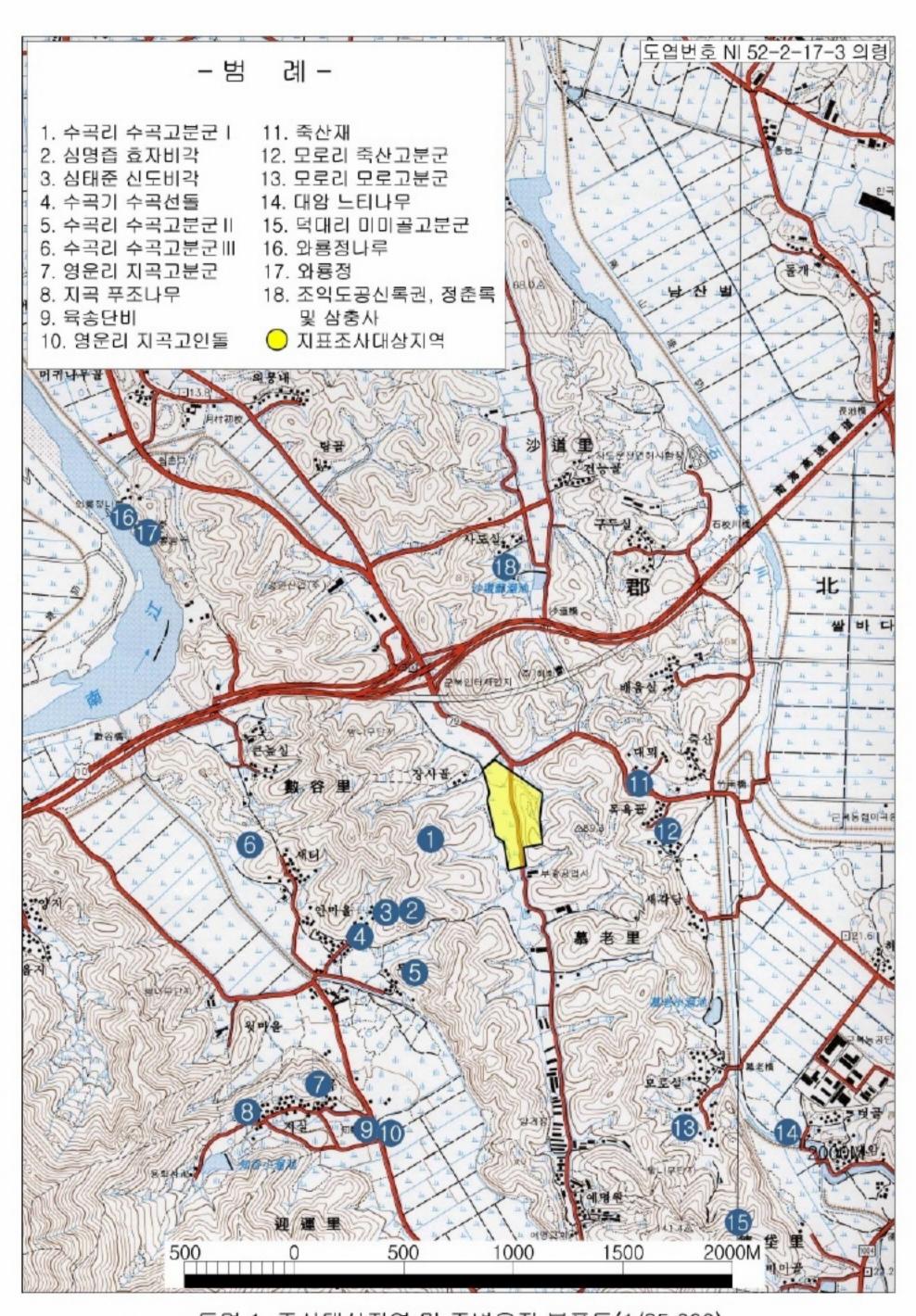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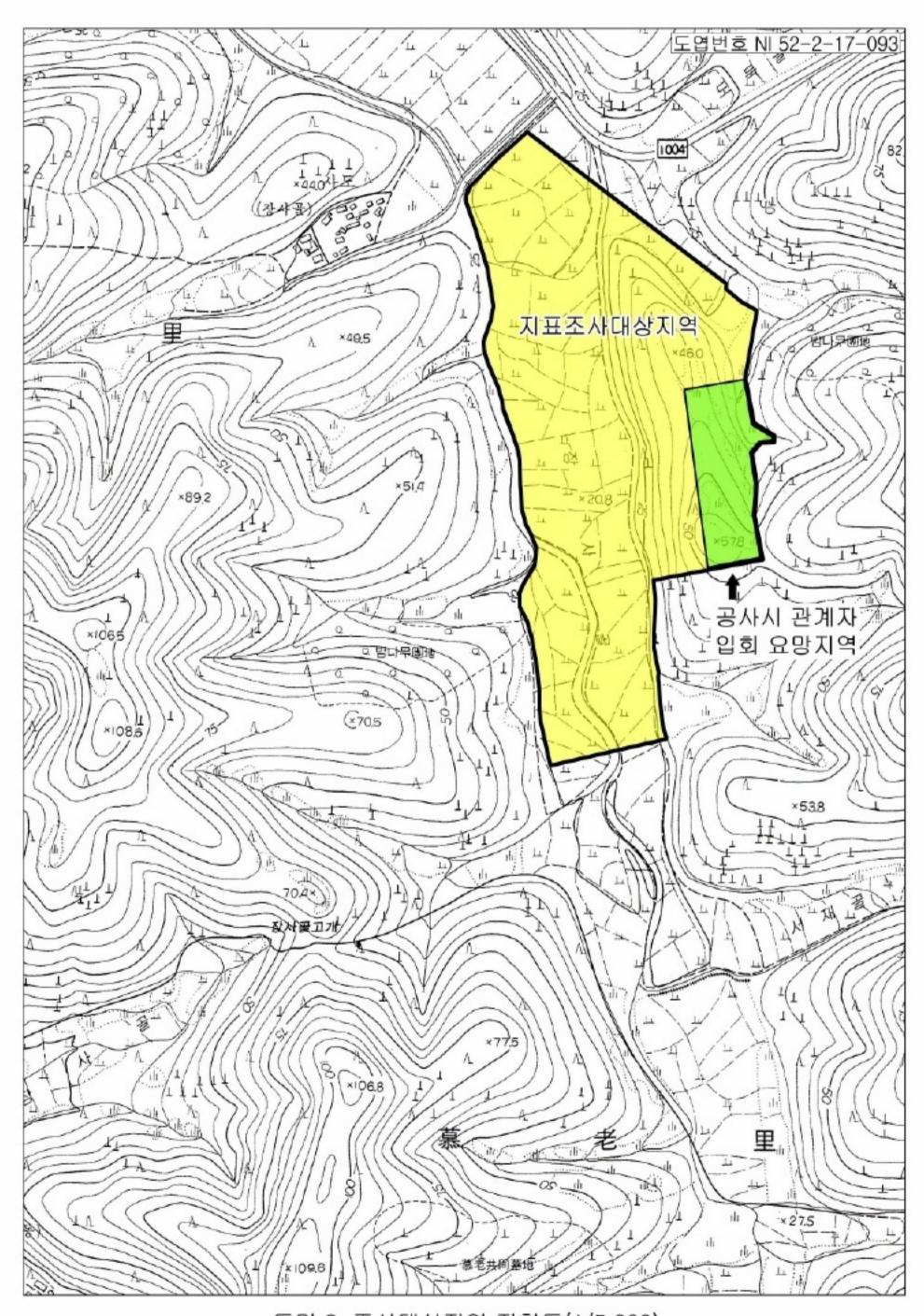
1. 조사개요3
Ⅱ. 역사·고고분야의 조사4
1. 함안군의 자연환경4
2. 함안군의 역사적 환경6
(1) 함안군 역사 개요6
(2) 함안군의 역사 문헌자료11
(3) 함안군의 유적과 문화17
3. 조사대상지역 개관 20
4. 조사대상지역의 고고학적 환경21
5. 조사내용24
Ⅲ. 조사단 의견 24
참고문헌 25
圖 版27

圖面目次

도면 1. 조사구간 및 주변유적 위치도 (1/25,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위치도 (1/5,000)2
圖版目次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서→남동)29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남→동북)29
도판 3. 조사대상지역내 현재 연고묘 조성상태30
도판 4. 조사대상지역내 추정 민묘130
도판 5. 조사대상지역내 추정 민묘231
도판 6. 조사대상지역내 추정 민묘331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I.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은 경양기술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산 36번지 일원의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지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른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되었다.

현장조사는 부지조성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고고역사조사단장)

조 사 원 : 박미정(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황은희(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5. 05. 11 ~ 2005. 06. 4(착수일로부터 25일)

예비조사 : 8일 현장조사 : 2일

자료분석 • 정리, 보고서 작성 : 15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산 36번지 일원

■ 과 업 량 : 34,700 m²(10,496평)

Ⅱ. 역사・고고분야의 조사

1. 함안군의 자연환경

咸安郡은 阿羅加耶의 오랜 역사를 지닌 古都로서 이에 따른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한 유서 깊은 곳이다. 지형적인 위치는 경상남도 중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으로는 馬山市, 서쪽은 宜寧郡과 晋州市, 남쪽은 馬山市・固城郡, 북쪽은 南江과 洛東江을 경계로 昌寧郡・宜寧郡에 접하고 있다. 동경 128° 16′~128° 35′, 북위 35° 09′~35° 23′에 해당하며, 동서간의 거리는 약 29㎞, 남북간의 거리는 약 26㎞이며, 면적은 416.77㎢(경상남도의 약 4%)이다. 함안군의 동단은 칠원면 무기리 (동경 128° 35′)이며, 서단은 군북면 박곡리(128° 16′)이고, 남단은 여항면 주동리 (북위 35° 09′)이며, 북단은 칠서면 이룡리(35° 23′)이다.

함안군의 지형을 살펴보면, 남부에는 艅航山(744m), 烽火山(649m), 西北山(739m), 匡蘆山(720.2m), 天柱山(640m), 五峰山(528m)이 펼쳐져 있고, 서부에는 防禦山(530m), 동부에는 爵隊山(648m)과 武陵山(744m), 그리고 중앙부에는 紫陽山(402m) 등이 남쪽과 동쪽 주변에 잇닿아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낙동강과 남강연안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농경에 유리한 대지와 편리한 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광려산과 여항산에서 발원하여 남강으로 北流하는 咸安川(일명 검암천)을 비롯하여 광려천 주변에 해발 10m 내외의 침식분지인 평야지대가 비교적 넓게 펼쳐져 있지만, 낙동강과 남강이 범람할 경우 저습지가 되는 낮은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1)

전체적인 지형의 형상은 '南高北低形'의 지세를 보이는 분지이다. 북쪽과 남쪽은 각각 낙동강과 남강에 의해 에워싸여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은 60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분지지형 한가운데로 함안천이 남에서 북으로 이분하면서 흘러, 그 川邊에 해발 10m도 안되는 평야지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다.2)이 때문에 함안군의 중심부인 가야읍 일대에는 낮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배후의 고산지대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낮은 능선들이 여러가닥 부채살처럼 뻗어 내려간다. 이 능선들은 동으로부터 차례로 道項里・末山里

¹⁾ 함안분지의 내부는 新期河成層의 谷間平野와 해발 10m 내외의 넓은 충적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나, 이 평야지대의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함안천을 따라 축조한 인공제방에 의해 농경지로써 확보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우수기에 남강과 낙동강의 물이 불어 범람한다면 이 지역일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습지가 되었던 지역으로 당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주는 지형적 요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咸安 道項里古墳群 I』,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1997.)

²⁾ 함안군의 지형적 특성상 서북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해발이 낮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다가 남강유역에 접한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과 낙동강유역에 접하고 있는 칠서면, 칠북면 일대의 낮은 지대에는 충적평지와 저습지가 발달하게 된다.(『咸安郡誌』, 咸安郡誌編纂委員會, 1997)

능선, 新暗里 능선, 伽耶里 능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능선들의 특징은 시각적으로 저지대에서 올려다보면 상당히 현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해발 50m 안팎의 얕은 구릉지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함안군 내에는 남고북저형의 지세적인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지대가 남에서 북으로 길게 뻗어 내려가고 있다.3)

이러한 지형을 중심으로 함안군에는 3개의 주하천이 흐르고 있다. 즉 함안천(중앙을 관통)·광려천(동쪽)·석교천(서북쪽)이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북동쪽 경계부분에서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지역내의 북서부에서 북동류하여 법수면에 이르러 다시 東折하여 낙동강에 합류하는 남강이 흐른다. 이 남강의 지류들은 함안군 지역의 남부에서 북류하고 있어 이 유역들은 狹長한 평야를 이루고 있다.4)

함안군의 지질상태는 중생대에 속한 퇴적암류와 이것들에 관입 혹은 분출한 화성암류에 의해서 구성된 '慶尙系(白惡紀) 河陽層群 咸安層'에 해당된다. 동남쪽으로 퇴적암류가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사질셰일·셰일 및 니암과 회색셰일층으로된 함안층과 회색셰일 및 흑색셰일의 鎭東層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의저지대에는 제4기 충적층이 함안층 및 진동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지질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함안층 상부에 진동층이 정합으로 덮이어 남측으로 同斜構造가 일관하여 습곡단층 등은 볼 수 없으며, 화성암의 관입으로 인한 기복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함안군 남쪽의 외곽지대인 마산시(舊 昌原郡) 진북면 진동지역에 미세한 구조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양은 대체적으로 구릉 및 산악지이지만 창녕군과 의령군의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과 남강유역은 하천범람지로서비옥한 충적토및 회색 사질토양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남강하류의 법수면 일대에는 저구릉지로 암쇄토, 산성갈색 삼림토및 황색토가 양질이다. 그리고 창원쪽의천주산과 작대산 일대는 구릉 및 산악지대이고 칠원면, 칠서면, 구마고속도로 서쪽지역과 군북면 동북부, 대산면 일대는 내륙 평탄지 및 곡간지로서 회색토 및 충적토, 양질 내지 식질토양이다.5)

기후적으로 함안군은 지리적·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위치상으로 한반도 동남부에 자리잡고 있어 북쪽의 대륙성 한대기류와 남쪽 바다의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연평균 기온은 13℃ 정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에 속하며, (주변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탓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에 속한다) 연강수량은 약 1,283㎜ 정도로 한반도 전역의 1,300㎜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양이다. 그런데 연강수량의 50%가 6~8월의 3개월에 집중되어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집중호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大陸盆地上의

³⁾ 昌原大學校 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I)』,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2.

⁴⁾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查報告書』,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⁵⁾ 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查報告』,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1995.

지형적 여건과 海洋性氣候의 특성이 고르게 분포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현재 함안군의 행정구역은 1읍 9면 238리 640반(자연마을 460)이며, 가구 수는 23,515세대에 인구는 62,476명이다. 교통망을 살펴보면, 동에서 서로 뻗은 남해고속도로 및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마고속도로, 그리고 영·호남 지방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가 중앙을 관통하는 등 비교적 편리하다.6)

2. 함안군의 역사적 환경

(1) 함안군 歷史 概要

1) 先史時代부터 阿羅伽耶까지

함안군 일대의 지형적·기후적인 요소들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는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으며, 그런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쉽게 드러나고 있다. 단지 당시의 여건상 농경지와 취락지로 이용되던 장소는 지금의 저습지대가 아닌 20m 이상 25m 이하의 평야지대나 낮은 구릉지대와 경사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

이후 삼한시대의 함안군에 대한 기록이『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弁辰韓 24국 중의 하나인 '弁辰安邪國'으로 비정되고 있으며(함안에 있었던 '阿羅加耶'로 비정),8) 또한『三國史記』<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 "함안군은 본래 '阿尸良國'이었으며, '阿邦伽耶'라고도 했다"9)고 한다. 그리고『三國遺事』에서도 五伽耶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라고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위치를 지금의 함안군으로 비정함에 있어 다른 異見이나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3세기까지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弁辰韓 24소국이 분립하여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4~5세기를 지나면서 이들 중 몇 개의 소국이 세력을 확장하여 신라와 오가야국 혹은 육가야국으로 통합되어 갔다. 그런데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의 경우, 南高北低形의 분지지형으로 북서쪽에서 낙동강과 남강이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해발 600m를 전후한 산들이 자연적으로 보호막을 형성

^{6) &}lt;함안군청>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조.

⁷⁾ 昌原大學校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I)』, 昌原大學校博物館, 1992.

⁸⁾ 본문 <史料 2>를 참조.

⁹⁾ 본문 <史料 7>을 참조.

하고 있으며, 산간의 곡저평지를 이용한 식량자원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남쪽으로는 진동만에서 마산만으로 이어지는 남해안과 연접해 있어 해산자 원 및 외래의 문물이 쉽게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외교섭에 있어서 도 육상과 해상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 천연적 자연환경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가야제국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유리한 여건 하에서 성장하였던 함안지역의 安邪國과 초기 아라가야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할 점이 있다.

첫째, 고대 국가형성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였던 '鐵'의 생산이다.

이 지역의 지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말 부분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형성 또는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질 좋은 '鐵'이 생산되었다는점이다. 함안인근의 대표적인 鑛山으로는 咸安鑛山으로 지금의 함안분지에서 진동만의 해안으로 통하는 길목주변의 여항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구리・은을 생산한 광산이라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쪽 고개너머 군북지역에는 郡北鑛山・南鮮鑛山・京那郡北鑛山 등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이 인접한 樂浪郡, 帶方郡을 비롯하여 日本과 중국에까지 수출되는 중요한 교역품이자 국력의 핵으로서 이후 가야제국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군사력의원동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철생산은 함안지역이 아라가야로 성장한 뒤, 남부가야연맹을 주도하면서 인접한 신라와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여 군사적 대립까지하게 되는 국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가야제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주변지역 해상세력과의 관계이다.

弁辰阿邪國 또는 阿那加耶 때 해상세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료는 없다. 그런데 고대 삼한시대에 弁辰韓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의 농경세력과 더불어 경남지역에서 전남지역에 이르는 남해안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10)의 존재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당시의 농경세력과 해상세력의 존재를 밝혀주는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당시 해상세력이었던 포상팔국의 세력이전 남해안까지 뻗쳤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이 두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포상팔국과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충돌의 단면도 보이고 있는데,11)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세력인 가야, 신라와의대립 및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衰落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한다. 그리고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 전투이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갈화성 전투 이후 경상도 일대 포상팔국의 세력이

¹⁰⁾ 당시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 즉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이름이 밝혀진 골포국(마산만)을 비롯하여, 칠포국(진동), 고사포국(고성), 사물국(사천)의 4국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개를 지칭하는 것이다.

¹¹⁾ 본문 <史料 6>을 참조.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이상의 대립은 시기상으로 볼 때 주로 2~3 세기에 많은 충돌을 야기한 것 같다)

셋째, 이 시기 辰韓의 宗敎儀禮를 단편적이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를 통해서는 이 시기 변진한의 종교적인 의례에 관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단지 중국의 『三國志』<魏書〉東夷傳에 弁辰韓에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제사방식이 다르다"12)라는 기록이 있어, 변한에 어느 정도 독자적인 제사체계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13) 그리고 당시의 여타 국가들의 제천행사와(고구려의 동맹이나 부여의 영고 등) 같이 하늘 또는 조상을 모시는 부족관련 제천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弁辰韓과 비슷한 시기의 馬韓의경우를 볼 때, "國邑에 '天君'이 있어 제천의식을 주관하였다"라는 기록이 『三國志』<魏書〉東夷傳에 보이고 있고,14) 이러한 제의구조 또는 체제를 갖춘 종교의례를 '蘇塗'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확한 명칭이나 관례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삼한의 소국형성 과정에서 이에 속했던 변한도 '蘇塗形 祭天儀式'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삼한 소국사회의 제천의식은 이른바 蘇塗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도는 아마도 소국 형성과정에서 농업생산력의 중대와 사회통합력을 강화하는 중요하고 강력한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친 이후 가야제국은 최소한 4세기 대까지는 신라와 그 영역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신라의 왕권과 군사력은 아직 미약했고, 또한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로 近肖古王(재위 346~375)이 먼저 한반도의 낙동강 방면을 확보하게 되어 南方境域에 우위를 점하게 되었던 시기에 해당되므로, 신라와는 비슷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安羅·加羅·卓淳 등에 존재하던 가야국가들은 백제권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당시 강성한 백제의 정치력·군사력에 의한외적인 것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더 큰 문제는 4세기 말 이전의 가야제국이 아직군장사회에 해당되었던 시절로¹⁵⁾ 그 응집력과 결속력 부족이라는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4세기 말을 거쳐 5세기 초에는 이러한 양상에다소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당시 가야제국을 대표하던 금관가야 외에도 대가야·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모인 가야제국의 전쟁규모가 군사력 1만 명 수준을 넘어 신라를 강하게 압박할 정도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백제를 제압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의 廣開土王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비록 고구려·신라의 연합군에 패하여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¹²⁾ 본문 <史料 2>를 참조.

¹³⁾ 宋華燮, 「三韓社會의 宗教儀禮」,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14)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傳. (상략)……國邑 各立一人 主祭天神國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하략).

¹⁵⁾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대치하여 전투를 치를 정도로까지 성장하였던 점은16)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5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對 고구려 전투에서의 패배였다. 이로 인해 전기 가야세력을 주도하였던 금관가야의 국력쇠퇴가 가시화되었고, 생존을 위한 가야제국 자체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安羅'라는 명칭 문제이다. 백제를 제압한 高句麗 廣開土王(연호 永樂, 재위 392~412)은 同王 10年 庚子(400)에 신라왕의 구원요청을 받고 步騎 5만이라는 대병을 남부에 투입하여 당시 임나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격파한 사실과금관가야의 쇠락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여기서는 함안과 관련 있는 역사적사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기록인『廣開土王碑文』에 의하면, 함안군의지명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安羅人戌兵'이 비문에 정확하게 세 번 등장하고 있다. '安羅人戌兵'이란 명확한 기능은 비록 알 수 없지만, '安羅'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安羅人으로 구성된 군대'로 해석되고, 여기에서 安羅國은 지금의 咸安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변화의 또 다른 이유로는 신라의 발전을 말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의 강화, 불교의 수용 등을 통해 강성해진 신라가 낙동강 동쪽의소국들을 재편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군사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5세기의 변화 속에서 이전 가야세력의 주도권 및 정치적 중심지가 금관가야로부터 高靈과 咸安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중 고령의 大伽耶가 지금의 경남 북부를 대표하고, 함안의 阿羅伽耶는 경남 남부를 대표하면서 상호 대등한 세력분포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17)

그런데 이러한 5세기의 큰 변화를 거친 가야제국의 소국들은 당시의 첨예화되었던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신라와 백제, 왜라는 삼각관계의 이해관계에 당면하게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들은 『日本書紀』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백제가 安羅로 進駐하여 자국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던 직접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라의 자주적인 태도에 의해서 무산되자 급기야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특히 백제세력의 진출과 관련된 회의18)) 그런데 이당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안라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김해지역의 금관가야가 쇠퇴한 이후 5~6세기에 걸쳐 경상도 남부지방에 존재하였던 가야세력을 주도하였던 것이 安羅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상태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다. 즉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6세기 중엽까지 8~10개의 소국이 분립된 상태로 존재해 6세기 초와 같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¹⁶⁾ 본문 <史料 1>을 참조.

¹⁷⁾ 昌原大學校 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I)』,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2.

¹⁸⁾ 본문 <史料 4>를 참조.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라 法興王代에 이르러 정치의 안정과 문화의 발전, 경제력·군사력이 강화되는 등 내외적 팽창기를 맞이하여 서진책을 펼치자 안라는 더 이상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라에 완전히 병합되고 말았다.(『三國史記』<地理地>의 기록 참조)

고대 弁辰 24국의 하나로 시작하여, 후반기 가야세력을 대표하였던 安羅는 결국 신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련을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멸망 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기록은 없다. 단지 신라가 한강유역 경영을 끝낸 시점(558년 이후)에서부터 남부지역 장악력이 백제보다 우위를 점하던 시기에 가 야제국에 대한 강요와 회유책이 수반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가야제국의 소국들 이 차례로 병합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결국 大加耶의 멸망을 전후하여 안라국 등 가야 10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19)

2) 통일신라에서 근 · 현대까지

기록에 의하면 오랜 역사를 지닌 아라가야를 신라 法興王이 병합하고 '郡'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에는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지방 군사조직 10 停의 하나인 '召三停'이 설치된다. 그리고 景德王 때에 이르러 전국적인 개편이 이 루어지고 이때 지역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된다. 이때 함안군은 두개의 속현(玄武 縣과 宜寧縣)을 가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건국 당시 전국에 12牧을 설치 했으나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成宗 14년 (995)에 10道制가 실시되어 기존의 12목을 12州 節度使로 개칭하면서, 함안이 '咸州刺史'가 되었다가, 顯宗 때에 金州(지금의 김해시)의 속군으로 된다. 그리고 明宗 2년(1172)에 감무가 설치되었으며, 恭愍王 23년(1373)에 이르러 縣人 周英 贊의 女息이 明나라에 들어가 황제의 姬가 되어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군으로 승격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지방군현으로서 자리잡게 되었 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道 중심체제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로 형성하게 되는데, 함안의 경우 고려시대의 지방제도가 조선전기의 변화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지방관의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咸 州'라는 명칭으로 되어 본격적인 지방군현이 되었다. 그러다가 燕山君 12년(1506) 에 한때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이듬해인 中宗 元年(1507)에 다시 군으로 환원되 었다. 이후 光武 12년(1906)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漆原(漆吐・漆堤・漆原)을 통합 하여 지금의 함안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1914년 11면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해방 이후 1954년 군청이 함안면에서 가야면으로 이전하였으며, 1979년 가야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¹⁹⁾ 가야제국 특히 아라가야의 멸망과 관련하여, 기록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法興王 때이지만 연도상으로 볼 때, 眞興王代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함안군의 역사 文獻資料

史料 1:『廣開土王碑文』10年 庚子

10년 庚子(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男 居城을 지나 新羅城에 이르자 왜인이 그 성안에 가득하였다. 바야흐로 (고구려) 군대가 이르자 왜적이 스스로 물러났다…(중략)…安羅人戌兵이 新羅城을 쳐서 빼앗았다……(하략).²⁰⁾

史料 2:『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상략)……변진의 狗邪國, 변진의 走漕馬國, 변진 安邪國…(중략)…변진과 진한은 모두 24국이나 된다. 大國은 4~5천 家이고, 小國은 6~7백 家로 총4~5만 호이다…(중략)…변진은 辰韓 사람들과 뒤 섞여 살며 城郭도 있다. 의복과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法俗이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문의 서쪽에 모두들 竈神을 모신다……(하략).21)

史料 3:『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49年 新羅征討條

(상략)……함께 卓淳國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比自体(창녕으로 추정)·南加羅(김해로 추정)·喙國(경산으로 추정)·安羅(함안으로 추정)·多羅(합천으로 추정)·卓淳(대구지역으로 추정)·加羅(고령으로 추정)의 7국을 평정하였다……(하략).22)

史料 4:『日本書紀』卷17 <繼體皇后> 23年 春 3月條

(상략)……이에 안라는 새로 高堂을 건립하고 (여기에) 勅使를 인도하여 올라갔는데, 國主는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국내의 士人으로서 미리 堂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하나 둘 있었으며, 백제사신 將軍君 등은 당아래 있었다. 그뒤로 몇 달 동안 걸쳐 2~3차례 모의하였다……(하략),23)

十年 庚字 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중략)…安羅人戌 兵 拔新羅城 □城……(하략).

21)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

(상략)……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 七百家 總.四五萬戶…(중략)…弁辰與辰韓維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か략).

- 22)『日本書紀』卷第九〈神功皇后〉四九年 新羅征討條. (상략)……俱集于卓淳 撃新羅而破之 因以 平定 比自体・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 國……(お략).
- 23)『日本書紀』卷第十七〈繼體皇后〉二十三年四春三月條. (상략)……於是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士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謨謀乎堂上……(하략).

^{20) 『}廣開土王碑文』十年 庚子.

史料 5:『日本書紀』卷19 <欽明命天皇> 23年 春 正月條.

23년(562) 봄 정월, 신라가 공격하여 任那官家를 멸망시켰다.(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임나가 망하였다고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임나이고, 별개로 지칭하면 加羅國·安羅國…(중략)…모두 10국이다.²⁴⁾

史料 6:『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14年

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가라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이벌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여명을 잡아 돌아 왔다.²⁵⁾

史料 7:『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함안군은 法興王이 대군을 동원하여 아시량국(일명 '아나가야'라고도 한다)을 없애고, 그 지역을 군으로 만들었던 곳인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2개이다. 玄武縣은 원래 召彡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召彡部曲이다.26)

史料 8:『高麗史』卷57 <志> 第11 地理2

함안군은 원래 아시량국(일명 '아나가야'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군으로 만들었으며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成宗 14년 (995) 함주자사로 하였다가 顯宗 9년(1018)에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본 주에 예속시켰으며, 明宗 2년(1172)에 감무를 두었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이곳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로 가서 궁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知郡事로 승격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金羅'로도 부른다.27)

史料 9:『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尚道 咸安郡

함안군은 본래 아시량국(일명 '아나가야'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法興王

^{24)『}日本書紀』卷第十九〈欽明天皇〉二十三年 春正月條. 十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 一本云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중략)…合十國.

^{25)『}三國史記』卷二〈新羅本紀〉柰解尼師今 十四年條.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 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26)『}三國史記』卷三十四〈雜志〉第三 地理一. 咸安郡 法典王以大兵 滅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 召彡縣 景德王改名 今召彡部曲.

^{27)『}高麗史』卷五十七〈志〉第十一 地理二. 咸安郡 本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新羅法興王滅之 以為郡 景德王改今名 成宗十四年 為咸州刺史顯宗九年 復今名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 周英贊之女 入大明為宮人 遂陞為知郡事 別號金羅.

이 이를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 9년 戊午(1018)에 김해주 任內로 예속되었으며, 明宗 2년 壬辰 (1172)에 비로소 감무를 설치하였다. 恭愍王 22년 癸丑(1373)에 그 고을 사람(縣人)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모시는 후궁(姬)이 되어 총애를 받자, (周)英贊에게 密直使의 관직을 내리고, 군을 승격시켜 知郡事가 되었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다른 이름으로 金羅라고도 하였다…(중략)…호수는 7백 32호에 인구는 3천 2백 6십 6명이다……(하략)28)

・史料 10:『咸州誌』巻1(四隣疆界・建置沿革・郡名・形勝・城郭・烽燧)

[四隣疆界] 동쪽으로 창원부(匡山) 경계까지 25리이고, 남쪽으로 진해현(碓山村) 경계까지 27리이며, 서남쪽으로 고성현(陽田) 경계까지 30리이고, 서쪽으로 진주(於束峴) 경계까지 31리이며, 서북으로 宜寧縣(鼎巖津) 경계까지 38리이고, 북쪽으로 신번현(尺堂津) 경계까지 30리이며, 북쪽으로 영산현(道興津) 경계까지 30리이고, 동북으로 칠원현(於嶺峴) 경계까지 28리이다.

[建置沿革] 본래는 아시량국, 일명 '아나가야'라고도 하였는데, 신라 法興王때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成宗 14년(995)에 함주자사가 되었다가, 顯宗 때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되어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시켰다. 明宗 때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고을사람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에 들어가 궁인이 되었는데 총애를 받는다는 것으로 올려 군으로 되었다. 본조에서는 그대로 따랐다.(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다) 弘治 乙丑(燕山君 11년;1505) 6월에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丙寅 9월(中宗 元年;1506)에 다시 군으로 내렸다.

[郡名] 阿尸良・ 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輿地勝覽에 기록)・巴山.

[形勝] 낙동강의 楓攤이 그 북쪽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여항산과 파악산이 남쪽에 鎭山이 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합포와 잇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의령의 경계와 접하였는데, 여기에는 작은 산들의 봉우리와 언덕으로 접하여 서로이어져 있으며 넓고 습한 들녘이 뻗어 있다.

[城郭] 군이 된 처음에는 城池가 없었다. 正德 庚午(成宗 5년;1510) 여름에 三浦의 왜인들이 난을 일으켜 熊川 등의 성이 함락되자, 조정에서는 군이 또한 바다와 멀지 않으니 築石하라고 명하였다. 성의 둘레는 5천 1백 6십 척이며, 높이는 13척, 甕城이 3곳, 曲城은 10곳을 두었다…(중략)…嘉靖 乙卯(明宗 10년;1555) 여름에 또 호남에서 倭變이 일어나자, 다시 郡城을 복구, 수리하였는데, 성의 둘레가 7천 3척이며…(중략)…높이는 13척이었다. 무릇 5백 4곳의 雉가 있었으며, 성 둘레 못(池)의 깊이가 6척이고 너비가 11척이었다. 남・동・

^{28) 『}世宗實錄』卷一百五十〈地理志〉慶尚道 咸安郡.

咸安郡 本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 新羅法與王 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九年戊午屬金海州任內 明宗二年壬辰 始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癸丑 以縣人周英贊之女 入爲大明皇帝侍姬有寵拜英贊密直使 陞爲知郡事 本朝因之 別號金羅···(중략)···戶七百三十二 口三千二百六十六·····(하략).

북 세 곳에 각각 문이 있었다···(중략)···성 안에는 우물이 75개가 있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烽燧] 파산봉수: 군의 남쪽 並谷에 있다. 성에서 15리 쯤 떨어져 있으며, 남으로는 진해현의 加乙浦에 응하고 북으로는 의령현의 可莫山에 응한다……(하략).²⁹⁾

史料 11:『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咸安>

咸安郡: 동쪽으로 창원부 경계까지 25리이고, 서쪽으로 진주 경계까지 31리이며, 남쪽으로 진해현 경계까지 27리이고, 북쪽으로 의령현 경계까지 38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8백 64리이다.

[建置沿革] 원래 아시량국(일명 '아나가야'라 한다)이었는데, 신라 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成宗 때에 咸州刺史로 만들었고, 顯宗이 지금의 명칭으로 복구하여 金州 (지금의 김해시)에 예속시켰다. 明宗은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 (1373)에 고을 사람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 궁인이 되어 寵愛를 받는다는 것으로써 군으로 승격하였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였다.

「郡名〕阿尸良・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라 하였다.

「城郭〕邑城: 석축이다. 둘레는 5천 1백 6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烽燧] 巴山烽燧 : 남쪽으로 진해현 加乙浦에 응하고, 북쪽으로 의령현 可莫山에 응하다.30)

[四隣疆界] 東至昌原府界(匡山) 二十五里 南至鎮海縣界(碓山村) 二十七里 西南至固城縣界(陽田) 三十里 西至晋州界(於束峴) 三十一里 西北至宜寧縣界(鼎巖津) 三十八里 北至宜寧新繁縣界(尺堂津) 三十里 北至靈山縣界(道興津) 四十里 東北至 漆原縣界(於嶺峴) 二十八里.

[建置沿革] 本阿尸良國 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 滅之 以其地為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成宗時 為咸州刺史 顯宗 復今名 屬金州(今金海) 明宗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贊之女 入明爲宮人有寵 陞為郡 本朝因之(載興地勝覽) 弘治乙丑 六月日 陞為都護府使 丙寅九月日 還降爲郡.

[郡名] 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載勝覽) 巴山.

[形勝] 洛江楓灘橫其北 餘航巴嶽鎭乎南 東連合浦 西接宜春岡阜相屬 原隰廣衍.

[城郭] 郡初無城池 正德庚午夏 三浦倭陷熊川等城 朝廷以郡亦距海不遠 命築石 城周五千一百六十尺十三尺 甕城三 曲城十···(중략)···嘉靖乙卯夏 又因湖南倭變 乃復修繕郡城 周七千三尺···(중략)···高十三尺 凡五百四雉 池深六尺 闊十二尺 有南東北三門···(중략)···城內有七十五井 雖旱不渴.

「烽燧」巴山烽燧 在郡南並谷 去城十五里許 南應鎮海縣加乙浦 北應宜寧縣可莫山……(かず).

30)『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咸安〉.

咸安郡: 東至昌原府界二十五里 西至晋州界三十一里 南至鎮海縣界二十七里 北至宜寧縣界三十八里 距京都八百六十四里.

[建置沿革] 本阿尸良國(一云 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咸州刺史 顯宗 復今名 屬金州 明宗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 周英贊之女 入大明爲宮人 有寵愛 陞爲郡 本朝因之.

[郡名] 阿尸良・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

[城郭] 邑城: 石築 周五千一百六十尺 高十三尺.

[烽燧] 巴山烽燧: 南應鎮海縣加乙浦 北應宜寧縣可莫山.

^{29)『}咸州誌』卷之一(四隣疆界・建置沿革・郡名・形勝・城郭・烽燧).

史料 12:『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2 歷代國界2

阿羅伽倻國: '羅'는 '那'라고도 하며 일명 '아시량'이라 한다.

法興王 때 아시량국을 멸하고 그 땅을 州로 삼았다가 景德王 때 고쳐서 咸安郡이라 하였다. 『輿地勝覽』에 이르기를, "지금의 함안군 북쪽 白沙里에 옛나라가 있었고, 牛谷의 동서쪽 경계 위에는 높이가 5丈이나 되는 옛날 무덤 40여 개소가 있는데, 모두 그 나라 왕들을 장사한 곳이라고 古老들이 대대로 전한다"고 하였다……(하략).31)

史料 13:『增補文獻備考』卷17 <輿地考>5 郡縣沿革3-慶尙道

경상도는 본래 辰國의 땅인데, 뒤에 북쪽은 辰韓이 되고 남쪽은 弁韓이 되었다…(중략)…金海·昌原·咸安은 우도에 속하였다.……32)

[표1] 함안군 관련

진 • 진한	기록 없음
新羅	<咸安郡> : 옛 아시량국으로 일명 아나가야라고 하였다. 法興王 때에 군으로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高 麗	<咸安郡>: 成宗 때 咸州로 삼았고, 顯宗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金州(지금의 김해시)에 편입시켰다가 明宗 때 현으로 삼고, 恭愍王 때 군으로 승격시켰다.
朝鮮	<咸安郡>: 本朝(조선조)에서도 그대로 하였다.

史料 14:『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州郡

咸安: 城이 있다. 아시량현이다. 18面 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8백 10리이다. 玄武縣은 신라 때 召多縣이었는데 후에 강등시켜 部曲이 되었다.33)

史料 15:『慶尙道邑誌』<嶺南 咸安郡>

[建置沿革] 본래는 아시량국, 일명 '아라가야국'이었는데, 신라 法興王 때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阿羅伽倻國 羅一作那 一云阿尸良 法興王滅阿尸良國 以其地爲州 景德王改 爲咸安郡 輿地勝覽曰 今咸安郡北白沙里 有古國 牛谷東西境上古塚 高五丈者四十餘所 皆其國君之葬 古老相傳……(하략).

32) 『增補文獻備考』卷十七〈輿地考>五 郡縣沿革三-慶尚道.

慶尚道 本辰地 後北辰韓南爲弁韓…(중략)…金海 昌原 咸安 屬右道.

【亞1】新羅: 古阿尸良國 一名阿那伽倻 法興王爲郡.

高麗: 成宗爲咸州 顯宗改今名 入金州 明宗爲縣 恭愍王陞郡.

朝鮮: 本朝因之.

33) 『燃黎室記述』 別集 卷之十六 〈地理典故〉 州郡.

咸安 有城 阿尸良縣 十八面 距京八百十里 玄武縣 新羅召多縣 後降爲部曲.

^{31) 『}增補文獻備考』 卷十四 〈輿地考〉二 歷代國界二.

成宗 14년(995)에 함주자사가 되었다가, 顯宗 때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되어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시켰다. 明宗 때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 (1373)에 고을사람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에 들어가 궁인이 되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 본조에서는 그대로 따랐다. 弘治 乙丑(燕山君 11년;1505) 6월에 도호부사로 승격되었다가, 丙寅 9월(中宗元年;1506)에 다시 군으로 내렸다.

[郡名] 阿尸良・ 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巴山.34)

史料 16:『嶠南誌』卷65 <咸安郡>

[沿革] 원래 아시량국('아나가야'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法興王이 정벌하여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으며,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成宗 14년(995)에 함주자사가 되었고, 顯宗 9년(1018)에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고치고 金州(지금의 김해시)에 예속시켰다. 明宗 2년(1172)에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이 고장사람(縣人)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에 들어가 궁인이 되어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군으로 승격되었다. 本朝에서도그대로 따랐다. 屬縣으로는 玄武縣이 있는데, 원래 신라의 召彡縣으로서 景德王 때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가, 후에 내려(강등하여) 소삼부곡이 되었다. 燕山君 11年(1505)에 府로 올렸다가, 中宗 元年(1506)에 다시 내려 군이 되었다. 光武 10년(1906) 칠원군과 진주의 上・下奉, 上寺 3면을 來屬하고, 龜山面을 분할하여 창원부로 이속시켰다. 大正 3년(1914)에 上・下奉, 上寺 3면이다시 진주군에 예속되었으며, 靈山郡의 길곡면, 사촌・양전면 봉암 2리 및 馬山府 내서면 예곡리 일부와 합쳐서 본군이 되었다.

「郡名〕阿尸良・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巴山.

[戶口] 호수는 3만 6천 8십 5호에 인구는 9만 8천 9백 9명이다.35)

이상의 사료들에서 드러나듯이 함안 일대는 고대 아라가야 이전부터 이미 弁辰

[建置沿革] 本阿尸良國 一名阿羅伽倻國 新羅法興王 滅之 以其地為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成宗時 為成州刺史 顯宗 復今名 屬金州(今金海) 明宗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贊之女入 大明為宮人有寵 陞為郡 本朝因之 弘治乙丑 六月日 陞為都護府使 丙寅九月日 還降為郡. [郡名] 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 巴山.

35)『嶠南誌』卷之六十五〈咸安郡〉.

[沿革] 本阿尸良國(一云 阿那伽倻) 新羅法興王 伐之 以其地為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成宗十四年 為成州刺史 顯宗九年 復今名 屬金州 明宗二年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贊之女 入明國 為宮人 有寵 陞爲郡 李朝因之 (屬縣) 玄武縣 本新羅召乡縣 景德王 改今名 後降爲召乡部曲 燕山十一年 陞爲府 中宗元年 還降爲郡 光武十年 漆原郡及晋州 上下奉上寺三面 來屬 割龜山面 移屬昌原府大正三年 上下奉上寺三面 還屬晋州郡 合靈山郡 吉谷面射村良田面 鳳岩二里及馬山府內 西面禮谷里一部 僞本郡.

[郡名] 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 巴山.

[戶口] 戶數 三萬六千八十五戶 人口 九萬八千九百九人.

^{34) 『}慶尚道邑誌』 〈嶺南 咸安〉.

24국 중의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여기에 발췌한 史料들을 통하여 이지역의 역사적인 변화 및 변천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지명과 역사적 변천과정,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등을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안군을 비롯한 인근일대에 존재하였던 고대 국가들과 그 주변여건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함안은 변진 24국 중의 하나인 安邪國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阿尸良國을 거쳐 阿羅伽耶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상세력과의 마찰을 거쳤으며, 당시 삼국이었던 신라·백제·고구려를 비롯하여 일본의 왜와 상호연관 작용을 거치며 고대사회의 일원으로 발전과 쇠락을 하였던 것이다.

둘째, 함안군을 비롯한 인근일대의 地名變化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역사상으로 比定되거나 나타나고 있는 함안군의 명칭들을 일괄하여 정리하면, '安邪國・阿尸良・阿那加耶・阿羅伽耶・安羅・咸州・金羅・沙羅・巴山' 등으로 통일신라시대 景德王 때 정비된 이후 명칭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咸州・咸安'의 郡名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셋째, 함안군을 포함한 인근일대의 행정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 신라 法興王代 군으로 된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구한말까지 지방군현으로서 큰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존립하였으며, 인근의 칠원현, 진해현과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다. 咸州郡(신라 景德王)→咸州刺史(고려 成宗)→都護府使(燕山君)→咸安郡(中宗)으로의 변화과정이 변화의 전부이다.

넷째, 함안군의 山川과 境界 및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함안군과 접하고 있는 인근 郡縣들과의 경계 및 거리, 서울과의 거리를 비롯하여, 경관과 자연산천, 그리고 당시의 호구와 인구, 일대의 관방시설, 기타 유적들에 대한 사실들도 언급하고 있다.

(3) 함안군의 遺蹟과 文化

함안군의 문화유적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선사시대부터 변진 24국을 거쳐 아라가야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국가들의 유적들이 산맥과 하천, 들판의 자연지리적인환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지역인 함안분지와 외곽지역인 군북·칠원에 집중적인 유적분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중심유적군인 함안분지는 위치상으로 현재 함안군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야읍·함안면·여항면·법수면·대산면, 그리고 산인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함안군 전체 유적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1) 城郭과 烽燧36)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군사시설물로는 城郭과 烽燧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사시설물을 일컬어 關防이라 하였다. 특히 함안군 일원은 아라가야의 古都이며, 해상과육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삼한시대의 古城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邑城에이르기까지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를 각종 문헌과 자료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함안지역에 산재한 城郭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咸安邑城	함안면 봉성리		
2	蓬山城	가야읍 사내리		일명 三峰山城
3	冬只山城	함안면 대산리, 산인면 송정리		
4	城山城	가야읍 광정리, 함안면 괴산리	사적 제67호	
5	城岾山城	함안면 북촌리, 산인면 입곡리		
6	防禦山城	군북면 하림리 산		
7	鼓鍾山城	대산면 평림리 산23-1		
8	門巖山城	산인면 모곡리 대천 산 111		
9	飽德山城	산인면 모곡리, 칠원면 유원리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	安谷山城	칠서면 회산리 산 247		
11	城址峯山城	칠서면 덕남리 산 51		
12	漆原山城	칠원면 유원리 산58, 회산리	도문화재자료 제202호	
13	漆原邑城	칠원면 성리		
14	德南里城址	칠원면 덕남리		
15	阿羅王宮址	가야읍 가야리 266 일대		
16	檢丹山城	칠북면 검단리 산219		
17	武陵城址	칠서면 무릉리 산198		
18	伽倻古城	『新增東國輿地勝覽』补조		

³⁶⁾ 함안군에 산재한 城郭과 烽燧遺蹟에 대해서는 『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咸安郡誌』(咸安郡誌編纂委員會, 1997,) 및 사료로는 『新增東國興地勝覽』・『慶尙道邑誌』・『嶠南 誌』등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기 보고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명칭・소재지 등 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사료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요약, 발췌하여 명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新增東國興地勝覽』: 邑城・巴山烽燧・伽倻古城(備考)・防禦山古城(備考)・古城(일명 城岾、一備考).

②『慶尚道邑誌』〈咸安〉: 防禦山城・飽徳山城・門巖山城・冬只山石城・城岾山城・巴山烽燧.

③『嶠南誌』: 邑城・飽徳山城・伽倻國舊墟・冬只山城・城岾山城・古國遺基.

[표3] 烽燧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巴山烽燧	여항면 내곡리		일명 지고산봉수 烽火山 峰燧臺
2	安谷山烽燧	칠서면 회산리 산247		

2) 함안군의 寺刹 및 佛敎文化財

[표4] 함안군의 불교문화재 관련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咸安 大山里石佛	함안면 대산리 1139	보물 제71호	
2	防禦山磨崖佛	군북면 하림리 산131	보물 제159호	
3	長春寺 石造如來坐像	칠북면 영동리 14	도유형문화재 제7호	
4	長春寺 五層石塔	칠북면 영동리 14	도유형문화재 제68호	
5	長春寺 大雄殿	칠북면 영동리 14	도문화재자료 제16호	
6	元曉庵 七星閣	군북면 사촌리 산70-1	도문화재자료 제15호	
7	主吏寺址 獅子石塔	함안면 북촌리 1002-3	도유형문화제 제8호	

3) 함안군의 鄕校・書院・祠宇・古宅 및 기타37)

[표5] 함안군의 郷校・書院・祠宇・古宅 및 기타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咸安鄉校	함안면 봉성동 1319-2	도유형문화재 제211호	
2	漆原鄉校	칠원면 용산리 299	도문화재자료 제181호	
3	德岩書院	칠원면 용정리 966-1	도문화재자료 제67호	
4	五備閣	산인면 운곡리 96-1	도문화재자료 제182호	
5	岳陽樓	대산면 서촌리 122	도문화재자료 제190호	
6	廣心亭	칠북면 봉촌리 230	도문화재자료 제217호	
7	道川齊	군북면 명관리		소장<丹書竹帛> 도유형문화재 제56호
8	武山祠	칠원면 무릉리	도유형문화재 제143호	
9	無盡亭	함안면 괴산리	도유형문화재 제158호	
10	魚溪古宅	군북면 완북리	도유형문화재 제159호	

^{37) 『}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書院』(안장헌·이상해, 1999), 및『한국의 건축문화재7-경남편』(강명환,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1991) 그 리고 『咸安郡誌』(咸安郡誌編纂委員會, 1997)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이 외의 함안관계 자료들은 앞의 책들을 참조)

3. 조사대상지역 개관

지금의 함안군은 '1본 9面'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옛 이름이 전승된 面의 이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였으며, 현재의 1본 9面들 모두 새로 생겨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다.38) 이 중에서 이번 조사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함안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지정지'로 행정구역상의 위치는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산 36번지' 일원이다.(면적은 약 ㎡/약 평이다)

郡北面은 함안군 내의 가장 큰 面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가야읍, 서쪽으로는 진주시 사봉면, 남쪽으로는 마산시 진북면, 북쪽으로는 법수면과의령군 의령읍을 접하고 있다. 동서의 길이는 8.1㎞이고, 남북의 길이는 11.48㎞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80.46㎢이다. 행정구역은 17개의 里, 38개 洞, 89개의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소재지는 덕대리이다. 세대는 3,230세대에, 인구는 7,870명이다.(2004년 9월 통계자료)³⁹⁾ 교통은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남해고속도를 비롯하여 경전선 철도 및 의령~마산간의 지방도로가 지나고 있다.

지형적으로 보면, 서남에서 산악이 중첩하고 여맥이 북으로 뻗어 있어 남쪽의 여항산과 백이산, 서쪽의 방어산, 동쪽의 당산을 비롯하여 많은 산들에 의해 둘러 싸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산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함안군의 지형적 특징인 '南高北低'의 지형과도 연관이 있으며, 원래는 일시에약 150mm 강우가 내리면, 침수되는 저지대에 속하는 곳으로 서북쪽으로부터 南江이 흘러 홍수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으나, 1959년 월촌제방과 최근 남강댐의 완공으로 지금은 남강본류가 서북쪽으로 흘러들어 월촌과 장지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형성하여 곡창지로 변모하였다.(이 평야지대의 최저지대는 유현리의 유전늪이다)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의 군북면은 대곡, 평관, 산팔, 죽산, 아도, 남산의 6개 里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586년(선조 19년) 鄭逑(당시 함안군수)에 의해 대곡리, 평광리, 산족리, 죽산리, 안도리, 남산리로 그 지명이 바뀌게 되었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 6개의 里가 모두 面으로 되었다. 이 중 '慕老里'는 1586년 당시 죽산리에 편재된 4개의 구역(모로곡・사두곡・월라촌・대산촌) 중의 하나였다. 원래는 咸安郡의 安道面 지역으로 4개 洞里를 관할하였다. 이것이 일제시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14년 군면통폐합 때 大谷面의 7개 洞里와南山面의 2개 洞里를 합하여 지금의 '郡北面'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3년 당시 죽남면이 군북면에 병합되면서 면소재지가 현재의 덕대리로 이전하였다. 이

³⁸⁾ 함안군의 관할 면 이름은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철저하게 변모하고 말았다. 전승된 이름은 없으며, 현재 새로 생겨 사용되는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안면·산인면(산익면+안인면)·대산면·가야면/읍·법수면·군북면·여항면·칠원면·칠서면·칠북면 이상 10개이다.(『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39) &}lt;함안군청> 홈페이지 군북면 관련 현황자료 참조.

후에 편찬된 자료인『嶠南誌』〈咸安郡〉 面里洞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郡北面에 속한 곳들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를 열거하면, 中岩里·德垈里·東村里·舍村里·明舘里·鳥谷里·小浦里·長池里·柳峴里·月村里·沙道里·慕老里·朴谷里·藪谷里·迎運里·下林里·院北里 등 모두 17里를 관할하였음을 알 수 있다.40)

이 지역의 문화재로는 동촌리와 명관리의 지석묘군을 비롯하여 도천재단 서죽백, 하림리의 방어산성·방어산마애불, 사촌리의 원효암 칠성각·심원사지·삼층석탑, 영운리의 松放寺址·송방사지 오층석탑, 원북리의 어계생가·조안묘소·채미정등이 있다.41)

4. 조사대상지역의 고고학적 환경

함안군 일대의 先史時代 및 三韓·아라가야의 유적·유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지형적·기후적인 요소들은 먼저 살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되는 지점의 곳곳에 넓은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는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당시의 여건상 농경지와 취락지로 이용되던 장소는 지금의 저습지대가 아닌 20m 이상 25m 이하의 평약지대나 낮은 구릉지대와 경사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南高北低形의분지지형의 특성으로 해발 600m를 전후한 산들이 자연적으로 천연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간의 곡저평지를 이용한 식량자원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있었던 농업생산력 및 남해안과 연접해 있어 해산자원 및 외래의 문물이 쉽게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외교섭에 있어서도 육상과 해상에서 유리한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 천연적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사시대(구석기~청동기시대까지)와 역사시대(삼한~아라가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함안면·칠원면·군북면 등지에 支石墓群이 있으며, 그 분포 지역과 양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활발했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함안지방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남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⁴²⁾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된 타지역과의 입지조건, 즉 낙동강에서 남강으로 이어지는 강변 충적

^{40)『}嶠南誌』卷之六十五〈咸安郡〉面里洞條 참조.

⁴¹⁾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⁴²⁾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밀양댐 수몰지역내에 위치한 고례리 유적,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산청읍의 유적, 남해안의 상노대 유적, 거창의 임불리 중석기유적 등이 있다.

지대와 인접한 미고지 등에는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서도 아직 조사되거나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러한 문화층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⁴³⁾

또한, 2000년 경남고고학연구소(사)에서 실시한 도항리 택지개발지역 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퇴적층내에서 신석기시대 전기 전반에 해당되는 토기편이 다량 출토되어 이후 인근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44)

현재 함안지역에 있어 유적·유물을 통한 본격적인 考古學的 연구가 가능한 시기는 청동기시대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함안지역을 空間的 영역으로 한 유적정밀지표조사 현황을 보면,45) 30개소 이상의 유적들이 확인·조사되었다. 이것들의특징으로 강변 충적지대나 그 주변의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을 선점하여 생활터전으로 활용하였던 점이다. 유적 중에서 취락지의 경우, 강변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조사된 바는 없고, 단지 도항리 일대의 구릉과 저지대, 그리고 칠원권의 匡廬川邊 구릉에 있는 五谷里聚落地가 대표적이다. 또한 매장유적인 지석묘는 대부분 당시 남강과 낙동강이 범람하는 침수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들판에입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외에도 구릉상에 있는 도항리, 오곡리 구릉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여기서 군북면의 경우를 보면, 함안분지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남강변이 군북면과 법수면의 대부분 지역에 해당하는데, 지석묘의 분포가 군북분지의 중심부에 펼쳐져 있는 들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東村里支石墓群, 明舘里支石墓群, 德垈里支石墓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백이산의 자락이 군북초등학교 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을 중심으로 동·서로 펼쳐진들판에 모두 40여 개 이상이 군집되어 분포하는 거대한 遺蹟群으로 함안지역의 선사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역사시대에 접어 든 三韓과 아라가야의 시대이다.

이미 청동기시대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 조사된 바와 같이 함안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삶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역사시대인 三韓·三國時代에 이르러 가야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아라가야로 이어져 남부지방을 대표적인 정치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사료인 『三國志』〈魏書〉東夷傳 弁辰條에 의하면, 弁辰韓 24국 중의 하나인 '弁辰安邪國'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이는 함안에 있었던 '阿羅加耶'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三國史記』〈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 "함안군은 본래 '阿尸良國'이었으며, '阿邦

⁴³⁾ 咸安郡誌編纂委員會,『咸安郡誌』,咸安郡誌編纂委員會,1997.

⁴⁴⁾ 경남고고학연구소,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지역 시굴 및 발굴조사』, 2000.

⁴⁵⁾ 대표적인 것으로써『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書』(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및『文化遺蹟分布地圖-咸安郡』(咸安郡・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2000) 등이 있다.

伽耶'라고도 했다"⁴⁶⁾고 하였으며,『三國遺事』에서도 五伽耶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라고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위치가 지금의 함 안지역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시기의 고분군들이 말산리·도항리 일대에 산재해 있어 강력한 세력을 지닌 권력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묘제의 특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삼한시대의 묘제는 청동기시대에서 이어지는 토광묘계 묘제가 유행하였으며, 전기에는 타원형의 묘형을 가지며, 깊은 묘광으로 되어 있는 토광목관묘가 채용, 묘광바닥의가운데는 묘의 주인공을 위한 목관이 배치되는 구조였는데, 이것은 시기상 약1~2세기때에 해당한다.47) 그러다가 4세기에 접어들면, 아라가야 때의 대표적인묘제는 토광목관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출토된 토기는 원통형의 대각을 가진 통형고배가 대표적이었고, 후반 경에는 불꽃무늬 고배가 나타난다. 그리고 5세기부터는 대체적으로 수혈식 석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아라가야의 5~6세기대의중심고분군은 앞서 말했듯이 말산리·도항리 일대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즉 5세기 이후의 대형분 중심의 고분군이 100여 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시기 함안지역을 대표하는 토기들과 함께 철제갑옷을 비롯한 각종 철제류 등의 유물들이조사,출토되었다. 이후 6~7세기대의 무덤으로는 횡혈식 석실분이 있다.

이상으로 함안지역의 고고학적 환경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으며, 금번조사대 상구역인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조사대상지역 주변유적 (도면 1. 조사구간 및 주변유적 위치도(1/25,000) 참조)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지정여부	비고
1	藪谷里 藪谷古墳群 I	군북면 장사골 및 수곡리 산142		4~5세기대
2	藪谷里 藪谷선돌	군북면 수곡리 269		
3	藪谷里 藪谷古墳群Ⅱ	군북면 수곡리 산112		5세기 후반
4	藪谷里 藪谷古墳群Ⅲ	군북면 수곡리 웃개우지 산60		
5	迎運里 知谷고인돌	군북면 영운리 지곡마을 입구		
6	迎運里 知谷古墳群	군북면 영운리 지곡동 산47		5세기 후반
7	慕老里 竹山古墳群	군북면 모로리 죽산동 산48		6세기대
8	慕老里 慕老古墳群	군북면 모로리 모로동 산116		
9	德垈里 米米谷古墳群	군북면 덕대리 대암동 산 161		

⁴⁶⁾ 본문 <史料 7>을 참조.

⁴⁷⁾ 대표적인 것으로 도항리 일대에서 조사된 9기의 토광목관묘가 있는데, 牛角形把手附長脛壺와 鐵劍 등 이른시기의 유물까지 확인되고 있다.

5.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남해고속도로 군북IC에서 빠져나와 군북쪽으로 불과 300여m 남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현지명은 장사골로 불리고 있으며 평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별다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곳곳에 민묘와 현 대 연고묘 등 묘제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구간은 해발 25~50m에 이르는 나지막 한 구릉으로 조사구간의 동쪽으로는 해발 60~80m에 이르는 구릉이 이어지고, 서 쪽으로는 폭 100여m 정도의 남북으로 긴 형상의 곡간평야가 발달되어 있는 지형 이다. 조사구간의 서쪽 사면은 도로 공사시 파괴되었고 조사구역에서 벗어난 남쪽 사면부에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기의 민묘가 들어서 있어 원 지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당시 잡목이 우거져 지표상에서 유물은 확인하 기 어려웠으나 조사지역의 남동쪽 구릉에서는 직경 4m 정도의 봉분 1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봉분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상에 위치하고 주변에 밤나무 원지가 조 성되어 있다. 또한, 북쪽구릉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직경 3m 가량의 봉분 2기가 확인되었다.(도면2. 참조) 이들은 봉분의 길이 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고 경 사가 급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민묘일 가능성이 많다. 현재 나무와 풀로 뒤덮여 유물이나 더 이상의 유구는 찾기 어려웠으나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된다면 주변에 이와 유사한 유구들이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 된다. 조사대상지는 해발 70~80m 정도의 산지 사이에 형성된 좁은 곡간평야를 끼고 있지만 동쪽의 모로고분군이나 죽산고분군, 서쪽의 수곡리고분군에 비해 생 활환경이 불리하여 유적이 입지하기에 불리한 환경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전의 유적이 위치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조선시대 묘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현 재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 '장사골'이란 명칭도 이에 연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Ⅲ. 조사단 의견

이상 함안군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와 문헌자료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조사구역은 산지로 둘러싸인 좁은 곡간평야 동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삼국시대 이전의 유적이 입지하기 불리한 환경이다. 하지만 구릉 사면에서 조선시대 민묘로 추정되는 봉분이 수기 확인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묘지로 이용되고 있어 오랜기간 매장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중 일부지역 (60×160m 약 9,600㎡, 도면2. 참조)은 공사시행시 관계자 입회하에 매장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가 발견될시에 문화재보호법 관련조항에 의거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中宗 7년;1512년 본)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 <地理志>

『咸州誌』

『新增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成宗 23년;1492년, 癸丑字 活字本)

『慶尙道地理志』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燃藜室記述』(日帝時代-朝鮮古書刊行會・光文會 인본)

『嶠南誌』(1937년, 大邱慶文堂 活字本)

『三國志』 <魏書> 東夷傳

『日本書紀』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편, 『加耶關係文獻考』,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8. 강영환, 『한국의 건축문화재』-경남편, 기문당, 199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咸安 道項里古墳群郡 I』,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查報告』,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1998.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金泰植、『加耶聯盟史』、一潮閣、1993、

권상노,『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안장헌 · 이상해, 『書院』, 열화당, 1999.

李柱憲,「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사학술심포지움, 2000,

仁濟大學校 加耶文化研究所 편, 『加耶諸國의 鐵』, 신서원, 1995.

-----, 『加耶諸國의 王權』, 신서원, 1997.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5.

昌原大學校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關 I』, 昌原大學校博物館, 1992.

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查報告書』, 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1995.

韓國古代史研究會 편,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尚南道支部, 『慶尚南道民俗集』,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尚南道支部, 1993. 함안군, 『함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0.

圖版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서→남동)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남→동북)



도판 3. 조사대상지역내 현재 연고묘 조성상태



도판 4. 조사대상지역내 추정 민묘1



도판 5. 조사대상지역내 추정 민묘2



도판 6. 조사대상지역내 추정 민묘3

(財)東亞文化研究院 地表調查報告 第27輯

함안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조성지구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5년 6월 1일 발 행 일 / 2005년 6월 2일

編輯·發行 / (射)東亞文化研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055) 265-9150~3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

인쇄처/부광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055) 285-1834